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16. 10. 25.(화)		
배포일	2016. 10. 25.(화)	홍보담당	홍보팀(02-880-5054)
담당부서	기획처	문의	기획처(880-5012, 1470)

'시흥캠퍼스 특정 단과대학 및 기숙형대학 설립' 보도에 대한 반박

- 지난 8월 22일(월) 체결된 시흥캠퍼스 조성 실시협약서에 '특정 단과대학 이전 및 기숙형 대학 설립'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무근입니다.

- '기숙형 대학 건설 단계적 추진', '기숙형 대학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두협약이 있었다' 는 보도 내용 또한 사실무근이며, 서울대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시흥캠퍼스에서 교육을 받는 기숙형대학(Residential College)의 도입과 관악캠퍼스 내 기존 교육단위의 이전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학내 구성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지한 바 있습니다.

- '기숙형 대학 건설', '단과대학 이전' 은 실시협약에 불포함된 사항이므로 '서울대가 기숙대학과 단과대학 이전 등을 시흥캠퍼스 조성계획에서 최종 제외하면 시흥시와의 협약을 위반' 이라는 보도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.

- 시흥캠퍼스의 세부계획은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'2천명 규모의 기숙사 설립 및 수용인원 4천명으로 증대', '세미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', '기초과목 및 필수 교양과목 개설' 등과 같은 보도내용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.

□ 실시협약에는 서울대학교의 다른 캠퍼스와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선한 인재를 육성하여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, 교육 및 산학 융복합 R&D 시설을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성과와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캠퍼스 조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복합연구단지 조성, 그리고 공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초·중·고 단위학교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
□ 서울대는 ‘향후 시흥캠퍼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에서도 기숙형대학 설립, 특정 단과대학 이전, 특정 학년 이전은 배제’ 될 것이라는 방침에 대해 총장 담화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외에 발표한 바 있고 이러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.